

일주 문



국민훈장동백장 수여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은 2월 21일 통일부 대회의실에서 남북관계 발전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동백장을 서훈 받았다.



108산사 순례기도회 봉행
도선사 주지 혜자 스님은 2월 23-27일 नेपाल 불비니에서 नेपाल불교도연협회 등 5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108산사 순례기도회를 봉행했다.



재가장기요양기관 사업설명회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대오 스님은 3월 6일 오후 2시 한국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재가장기요양기관 설명회를 개최한다.(02)723-5101



'몸에 좋은 악선 음식' 특강
서울 종로노인종합복지관장 정관 스님은 2월 27일 오전 11시 복지관 4층 강당에서 '몸에 좋은 악선음식'을 주제로 특강을 연다.(02)742-9500

광주전남 봉축 특별강좌



불기 2552년 봉축행사를 앞두고 광주전남지역의 봉축업무 담당 실무자들을 위한 특별강좌가 열렸다. 2월 15일 광주사암연합회 불교회관 2층에서 열린 이날 강좌는 광주·전남지역의 교구본사 및 사암 총무원과 불교단체의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봉축행사의 기획과 실제'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강의에 앞서 이준영 실장(호남불교문화원 대표)은 '연등축제가 지역 특색에 맞춰 진행되는 행사로 치러지길 바라는 뜻에서 강의를 마련하게 됐다'며 '광주전남지역 사암과 불교단체는 광주전남 불교의 해에 발맞춰 지역불교 활성화를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인사말 했다. 강의를 봉축위원회 박상희 총괄팀장이 맡아 행사 담당자가 키워야 할 능력과 진행 준비사항 및 유의점을 설명했다. 이번 강좌는 육화포럼과 호남불교문화원이 주최하고 현대불교신문 광주전남지사의 후원으로 이뤄졌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광주 석가사 개원법회 봉행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위치한 석가사(주지 도용)가 2월 17일 개원법회를 봉행하고 본격적인 지역포교 불사에 나섰다. 17일 열린 개원법회에는 현장 스님(보성 대원사 주지)과 인도에서 온 원보체, 개위 스님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했다. 현장 스님은 "지역불교 활성화를 위해 석가사가 많은 노력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김학동 대영흥산 대표이사

동국대 장학금 2억 기부



김학동 대영흥산 대표이사(사진)가 동국대(총장 오영교)에 2억원의 장학금을 기부했다. 동국대는 2월 18일 대학본관 총장실에서 김학동 대표이사의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 대표이사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라는 선전의 유지를 받들어 기부사업을 펼쳐왔다"며 "특히 결혼식 주례를 김동화 前 동국대 총장이 서 준 인연으로 동국대에 기부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불자가수 화합의 장 마련에 주력”

제10대 대한불자가수회 명국환 회장



“연예인들이 언제든 와서 기도와 음성공양 올릴 수 있는 도량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제2대, 5대에 이어 제10대 대한불자가수협회(이하 협회) 회장에 선출된 명국환 회장(76·사진)의 서원이다.
1953년 ‘백마야 울지마라’로 데뷔해 ‘방랑시인 김삿갓’ ‘백마강’ 등으로 온 국민의 가슴을 적셨던 명국환 회장은 금사향, 김환선, 남강수 등 협회 원로위원이다. 그런 그가 다시 회장직에 나선 것은 그만큼 서원이 간절했기 때문이다.
협회는 이를 위해 군부대 공연 등 기존 포교점점 사업 외에 기금 마련 특별 디너쇼를 개최할 예정이다. 소년소녀가장들이 일일차집 개최와 (가정) ‘가요80년사’ 행사 등도 준비한다. 특히 ‘가요80년사’는 명국환 회장이 아산차계 준비하고 있는 행사다. 명 회장은 1940년대 ‘108염주’, 1950년대 ‘목련공주’ ‘인도의

항불’ ‘버마의 옥피리’ 등을 조목조목 들려, “한국가요 80년사에는 대중의 삶이 스며 있고, 불교사상이 녹아 있다”고 말했다.
가요역사의 산증인 원로가수 명국환 회장이 보는 가요는 민족의 불성이 담긴 불교문화의 한 축이다.
명 회장은 임기중 협회가 도량 마련에만 몰두할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한다. 포교와 인재발굴은 창립 후 지금까지 협회의 화두였다. 협회는 새 사업의 일환으로 4월부터 매월 제주도 호도관광을 기획하고 있다. 올해 제7회를 맞는 불자노래자랑도 일차

개 개최할 예정이다.
“협회 200여명 회원 중 40여 명이 꾸준히 행사에 참석한다”는 명 회장은 협회에 젊은 불자가수들이 적은 점을 제일 안타까워했다. 그런 가운데 불자노래자랑을 통해 발굴한 대학생 불자가수 마하성은 협회의 가장 큰 자랑이다. 나훈아 사단에서 후원하고 있는 불자가수 마하성은 ‘두고 두고’라는 타이틀곡으로 올해부터 방송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사회문화행사에 일반 이벤트 업체는 물론 심지어 개신교 업체까지도 참여하는 현실을 개편한다”는 명 회장은 이 또한 협회를 활성화시키지 못한 원로위원으로서 책임이 크며 자신의 탓으로 돌렸다.
명국환 회장은 “준비된 연간 사업계획을 착실히 진행해 협회의 내실을 기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02)713-2905
조동섭 기자

조계종 중앙신도회 신년하례법회 봉행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김의정)는 2월 18일 서울 청담동 호텔 프리아 그랜드볼룸에서 2008년 재가불자신년하례법회를 열었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포교원장 혜승 스님, 청와대 김병준 정책기획위원장, 문화관광부 김성진 총무실장, 국회 정강희 회장 이해복 의원, 대통령직인수위 김효채 기초국장 등 40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중앙신도회 김의정 회장은 “지금은 전통과 문화를 지키기 위해 중·장기적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교류·협력할 때”라며 “중앙신도회가 불교계의 사회에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강진 기자

조계종 체육인불자연합회 장학금 수여식



조계종 체육인불자연합회(총재 혜총)는 2월 20일 오전 11시 한국 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불자선수들을 격려하기 위해 ‘조계종 체육인불자연합회 장학금 수여식’을 봉행했다. 체육인불자연합회는 이날 국가대표 박예지(양궁·대전체고) 선수와 국가대표 심비근 위수봉(태권도·방어진고 3), 양정훈(유도·동지고 2), 최대한(사격·정선중 2) 선수, 서울지역 박근홍(조정, 서울체고) 선수에게 각각 150만원씩 지원했다. 체육인불자연합회는 이날 장학금 수여식을 시작으로 매년 16개 지방별 각 1명, 국가대표 선수 4명 등 총 20명의 불자선수들에게 총 30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강진 기자

37사단 육전연대 위문



육전불교사암연합회(회장 해철, 대행사 주지)는 2월 15일 37사단 육전연대(연대장 최경식 대령)를 방문해 겨울을 녹이는 훈연물 미진 장비들을 찾아 행과 음료수 등 간식을 전달하고 장비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해철 스님은 “막바지 추위가 극심하지만 나라를 위하는 마음으로 참고 견디며 훈련에 임하는 장병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해철 총창치사장

충북종교인명화회의 총회 개최



충북종교인명화회의(회장 최근덕)는 2월 15일 청주향교 대회의실에서 ‘충북종교인명화회의 총회’를 개최, 신임 임원 선출과 2008년 사업 계획을 확정했다. 충북종교인명화회의는 이날 회의원 통해 상임대표에 박영순 전교(유교), 사무국장 이강선 국장(유교), 대변인 해철 스님(불교) 등을 선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종교간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사)충북종교인명화재단 기부 등록 및 활동 ▲충북종교문화제 및 문화협력 세미나 개최 ▲종교인 자원봉사자교운 등의 사업에 관한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 여수령 기자

정월대보름 방생대법회 봉행



2월 21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조계종 대구사위주연합회는 김포 나정리 나정해수욕장에서 시민 8000여명과 함께 제28회 정월대보름맞이 방생대법회를 봉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포시에서는 남북통일 기원과 국가경제 회생을 발원했다. 청도사암연합회(회장 정광)도 청도군 내 둔지에서 김관용 도지사(경북도), 허은 스님(동화사 주지) 등 내빈과 2천여명 불자가 함께 군민회합을 기원하는 달집놀이 행사를 가졌다. (사진) 손범천 대구지사장

“蓮관련 사업 세계화 이끌 터”

세계연연구소 여는 성원 스님



“연을 소비하고 생산하고 상업화시켜 전 국민이, 나아가 전세계인이 연을 접할 수 있도록 연구소를 키워나가겠습니다.”
인연 강화 선원사 주지 성원 스님(사진)이 2월 26일 ‘연꽃을 세계화, 인류를 향하여’라는 표어를 걸고 선원사 내에서 세계연연구소 개원식 및 헌판식을 가졌다.
2000년부터 선원사지에 연을 재배해온 스님은 그 동안 연꽃 축제를 비롯해 좋은 연 연구회, 좋은 연 주식회사, 좋은 연 소비자모임 등을 결성해 끊임없이 가공·유통해왔다. 스님이 상품화·식문화 한 연 관련 물품만 140여점에 달한다.
스님은 “연이 그 동안 농산물이었는데 농림부에서 얼마 전부터 연을 쌀 대체·특화작물

“모범이 되는 신행단체로 만들 터”

서울시공불련 이등우 초대 회장



“이렇게 큰 신행단체의 초대 회장을 맡아 어깨 무겁습니다. 어떤 신행단체에서 봐도 모범이 되는 신행단체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서울시 구정공무원불자들이 모여 함께 신행활동을 독려할 서울시공무원불자연합회(이하 서울시공불련)가 결성되면서 초대 회장으로 이등우 서초구청불자회장(서초구청 과장·56)이 추대됐다.
이 회장은 2월 16일 오전 12시 30분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 창립기념법회 및 초대회장취임식을 통해 이와 같은 각오를 밝혔다.
이번에 결성된 서울시공불련은 25개 구청 가운데 불자회가 만들어진 20개 구청불자회가 모여 연합회를 구성한 단체로 총 2000여명의 회원이 가입돼 있다. 이는 시도방공무원불자회 중에서는 가장 큰 불자회로 서울지방공무원불자들이 단위 기관에서만 활동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각 구청과 교류하며 신행활동을 함께 함으로써 서로 간의 정보공유는 물론 불자회의 저변을 넓힌다는 의미가 크다.
이 회장은 “서울시내 사찰과 스님을 연계해 서울시 사암연합회를 구성하고 성도일을 기념일로 추진하는 한편 불자회가 만들어지지 않은 서울시내 구청에 결성지원 할 예정”이라며 “성지순례, 순회법회 등으로 회원 상호 간의 친화력 증진은 물론 불교계 내 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불자회는 어디까지나 마음을 단련하기 위해 구성된 단체입니다. 수행정진하는 마음으로 서울 시민들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지는 불자회가 되도록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한편 이날 창립법회에 앞서 조계사에서는 한국공무원 불자연합회(회장 하복부) 신년하례법회도 함께 봉행됐다. 김강진 기자

“광주 공무원불자연합회 창립할 터”

광주경찰청 불자회장 고재업



광주경찰청 불자회가 2월 20일 광주경찰청 대회의실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하고 본격적인 출범을 알렸다. 광주경찰청은 지난해 12월 전남경찰청에서 분리돼 청사를 마련함으로써 새롭게 등지를 하게 됐다.
법회에는 현은 스님(해남 대흥사 주시)을 비롯해 영조 스님(송광사 주지), 성오 스님(백암사 주지), 범각 스님(대흥사 주지), 경담 스님(선암사 주지) 등 광주전남지역 5대교구본사 주지사님, 정인 스님(광주불교사암연 회장)을 비롯한 지역 사암 스님 40여 명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했다.
광주경찰청 불자회장으로 선출된 고재업(법명 현묵·사진) 회장은 “광주경찰청 불자회 회원들을 위한 법회와 신행활동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 광주 지역 공무원들이 신행활동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광주 공무원불자 연합회’ 창립을 목표로 활동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광주경찰청 불자회에는 현재 60명의 회원이 있으며, 매

동대경주병원 영가천도재 봉행

동국대학교 경주병원(병원장 이규춘)은 2월 15일 제4회 영가천도재를 봉행했다. 천도재는 지난 한해 경주병원에서 임종환 380여 명의 환우와 유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경주병원 법당은 무자년 새해 첫날부터 법당에 380여 위패를 모시고 매일 3차례에 걸쳐 영가를 위로 법회를 열었다.
천도재에는 증명법사 성타 스님(불국사 회주), 지도법사 무구 스님을 비롯해 유가족과 병원 교직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천도재를 주관한 무구 스님은 “올해로 네 번째를 맞는 천도재에 많은 유가족과 교직원들이 동참해 뜻 깊은 행사가 되었다”고 말했다. 여수령 기자

【특보】 불교닷컴 박봉영 기자는 3월 2일 오후 12시 30분 서울 광화문 세안프라자웨딩홀에서 오유진(前 현대불교신문 기자)과 회식을 밝힌다. (02)733-7338

‘현대불교’ 후원은 포교에 동참하는 길!
후원 계좌 : 083-25-0008-365 국민은행 (예금주 (주)에이치비엠씨)